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강유진*

본 연구는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양육 상황, 양육지각, 자원 등을 손자녀 양육경험의 주요 차원으로 설정하여, 매개모형분석을 통해 이들 요인 간의 상호복합적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손자녀 양육동기의 대부분이 맞벌이가정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함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양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둘째, 돌봄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고, 돌봄 상황의 차이가 가져온 양육지각과 자원의 차이가 매개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원 중 경제형편과 이웃도움은 양육지각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과 관련되었으며 자녀지지는 양육지각과 관련이 없었다. 결국,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통해 성인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임을 보여준다. 또한 손자녀 양육경험은 관련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복합적 과정이며, 특히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작용하는 개인, 가족, 사회적 자원의 유용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차원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차원 이상의 관심사로 다루어짐으로써, 이들의 외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손자녀 돌봄, 심리적 복지감, 양육지각, 자원, 매개효과

I. 문제제기

전통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자녀세대를 위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제공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행동이 대중적, 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족가치관이 작용함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핵가족

*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 yoojir528@chongshin.ac.kr

중심의 현대의 가족가치관에서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는 부모이며, 조부모의 역할로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보조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손자녀 돌봄을 통해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여전히 조부모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준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노년기는 손자녀 양육과 같은 자녀양육의 책임과 역할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채,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과 재미를 추구하면서 보낼 것이라는 데 더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Daly and Glenwick, 2000; Haglund, 2000). 이것은 오늘날의 가족가치관의 특성상 손자녀 돌봄이 조부모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것에 어떤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 그 한계를 뛰어 넘는 과도한 손자녀 양육 책임감이 조부모에게 주어질 경우 손자녀 돌봄은 부담감이자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Thomas, 1986; Bowers and Myers, 1999). 따라서 최근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울, 스트레스, 생활만족 등 주로 노년기 심리적 적응, 즉 심리적 복지감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집중하여 왔다(최혜경, 2002; 김혜선, 2004; 배진희, 2007; 이지연·정경미·김원경, 2008; 김동배·박은영·김세진, 2010; Emick and Hayslip, 1999; Kelly, Whitley, Sipe and Yorker, 2000; Sands and Goldberg-Glen, 2000; Bunch, Eastman and Griff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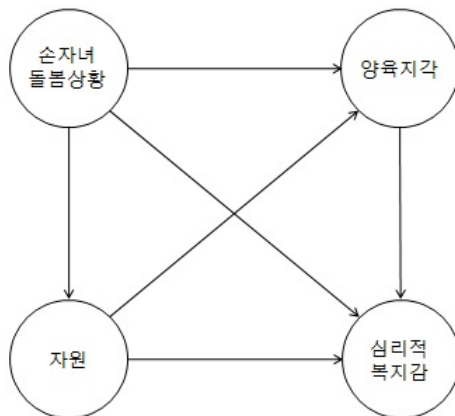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Bowers and Myers(1999)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우울 등 심리적 복지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써 Gatz, Bengston and Blume(1990)이 제안한 모델을 활용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양육 상황에서 양육자가 직면하는 경험을 크게 네 가지의 핵심적 차원을 들어 설명한다. 이 네 가지 핵심차원은 바로 '스트레스원'(Stressor), '양육에 대한 지각과 평가'(Perceptions and appraisals), '자원과 대처'(Resources and coping), '결과'(Outcomes)이다. 원래 Gatz 외(1990)는 이 모델을 통해 성인부양자가 노부모에게 부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설명하였지만, Bowers and Myers(1999)는 이것을 다양한 손자녀 양육 상황에 처한 조모의 양육 경험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이들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틀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원'은 다양한 손자녀 양육 상황이며, '결과'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되겠다. 그리고 '양육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양육 상황에 대한 조부모의 지각으로, '자원과 대처'는 노인의 경제적 형편과 사회적 지지로 설정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Bowers and Myers(1999)가 제안한 양육 상황의 네 가지 주요 차원의 복합적 상호 관계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구조모형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한 조부모들의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 중 대다수가 주로 요인들의 관련성을 일방향적 인과관계 속에서 밝히거나, 각 관련 요인들의 개별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치중하였다(김동배 외 2010). 이것은 어떤 요인들이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더욱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일방향적 인과관계 속에서 각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요인을 무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Newcomb, 1992, 이상균, 2008에서 재인용). 또한 손자녀 양육 상황에 앞서 제안한 네 가지 요인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방향적 인과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분석하기보다 관련요인들의 영향을 다중으로 연결된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매개모형 토대로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가 ‘어떠한 경로’로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상황이 다양한 요인들로 상호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의 다중적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위한 서비스 개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탐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선행연구 고찰

1.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최근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의 의미는 과거의 것과 다르다.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조부모는 노년기에 자신이 기대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일상적 삶의 스케줄을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이것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할 수 있다(Bunch, Eastman and Griffin, 2007). 또한 노년기에 진입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발달단계상 '때늦은(off-time)' 역할 수행으로써 양육을 수행할 신체적 에너지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발생한다(Jendrek, 1994; Bowers and Myers, 1999). 이로 인해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취약성과 더 많이 관련이 된다고 알려졌다(최혜지, 2008; Fuller-Thompson, Minkler and Driver, 1997).

따라서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에 대한 관심은 스트레스, 부적응 등 주로 심리적 측면의 복지감에 집중되어져 왔다. 심리적 복지감이란 부정적·긍정적 심리적 감정을 포함하는 주관적 개념으로서(배진희, 2007), 주로 우울과 생활만족도로써 측정된다(양소정·정경미·김원경, 2008; 이정화·한경혜, 2008). 우울은 노년기에 만성질환과 더불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심리적 특성이면서(신창환, 2010), 양육 상황에 가장 오랫동안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다. 특히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알려졌다(Musil, 1998; Brown and Boyce-Mathis, 2000).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인 생활만족도 역시 우울과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심리적 복지감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써 사용되었다(양소정 외,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심리적 적응, 즉 심리적 복지 상태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우울과 생활만족도를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들은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해 왔다. 이 연구들(최혜지, 2004; 백경숙·김영란 2006; 배진희 2007; 김동배 외 2010; Kelly, Whitley and Sipe, 2007)은 조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등 조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특성,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심리적 부적응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역시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할 것이다. 첫째, 본 연

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양육요인을 Gatz 외(1990)가 처음 제안하고, Bowers and Myers(1999)가 손자녀 양육 상황에 적용시킨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모델은 네 가지 주요한 차원, 즉 '스트레스원(stressor)', '지각 혹은 평가(perceptions and appraisal)', '자원과 대처(resources and coping)', '결과(outcomes)' 등의 요인들이 부양제공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조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적 사건이라는 가정 하에 손자녀 양육의 다양한 상황을 '스트레스원'으로, 이로 인한 '결과'를 심리적 복지감으로, 그리고 '지각'요인을 조부모의 양육지각으로, '자원'은 조부모의 경제형편과 자녀, 이웃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으로 설정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위의 관련요인들 간의 관계를 단순히 일방향적 인과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상호관련성을 규명하는 매개모형을 사용할 것이다.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상황은 매우 복잡적이며, 조부모의 양육경험은 다양한 여건에 의해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설정한 주요한 네 가지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와 중간매개과정을 통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것이다.

2. 손자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서 손자녀 양육 상황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2005)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40.7%가 조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맞벌이 가족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조부모들이 대리 양육자이자 보조양육자로서 손자녀를 돌보는 일에 참여함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손자녀 양육 상황은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형태에서부터 맞벌이 부모를 도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배진희, 2007; Bowers and Myers, 1999; Kelly, Whitley and Sipe, 2007)은 각기 다른 손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부모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가 상이하다고 보고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조부모 손자녀 돌봄의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각기 다른 손자녀 양육 상황에서 조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 역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트레스원'으로서 손자녀 양육 상황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손자녀 돌봄 연구들의 많은 수가 주

로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조손가족의 조부모에게 관심을 집중한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자녀 양육 상황을 어느 한 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것의 차이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상황을 구분하는 기준은 '손자녀 양육 동기'와 '양육대가를 받는지 여부' 등 두 가지 차원이다.¹⁾ 여기서 손자녀 양육동기는 자녀세대의 맞벌이로 인한 경우와 자녀세대의 가출,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한 조손가족 상황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양육대가 여부란 자녀세대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들은 노인의 손자녀 양육 상황의 상이한 동기 및 양육책임 정도를 반영하면서, 노인들이 조손가족 상황과 양육대가를 받지 않는 '전담양육 상황'에 처했는지 혹은 '공동양육 상황'에 처했는지를 구분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육 상황에 있어서 '양육지각'의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양육지각'이란 양육 상황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Bowers and Myers, 1999)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혹은 보람 있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된다. 이제까지 손자녀 양육 관련 연구들 중 조부모가 양육책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우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Dollbin-MacNab, 2006). 다만,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사회인지론적 관점을 참고한다면(신창환, 2010), 손자녀 양육 상황에 대한 조부모의 인식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실증 연구(최해경, 2002; Sands and Goldberg-Glen, 2000; Mills, Gomez-Smith and DeLeon, 2005)들은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손자녀 양육을 덜 힘들다고 지각하는 조부모들이 더 낮은 우울 수준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양육지각을 조부모들이 처한 다양한 양육경험과도 관련시킬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이지연 외, 2008; 한경혜 외 2008)에 의하면, 손자녀 양육시간, 양육동기 등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상황은 조모의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특히 한경혜 외(2008) 연구는 자녀가족의 해체에 의하여 손자녀 양육을

1) 아직까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형태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지에 관한 합의된 기준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손자녀 양육형태의 분류 기준은 주로 부모와 조부모가 동거하는지의 여부, 부모세대의 양육지원 정도, 양육시간 등이며, 이를 토대로 전담양육과 원조양육(최해지, 2004), 주양육과 공동양육(배진희, 2007; 김동배 외, 2010), 혹은 광범위 양육과 중간범위 양육(이지연 외, 2008) 등으로 구분하였다.

맡았을 경우보다 자녀세대의 맞벌이로 인해 손자녀를 돌볼 때 조모가 양육부담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손자녀 양육환경에 따라 양육지각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양육지각의 차이는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양육지각'을 손자녀 양육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육 상황에 작용하는 '자원'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원'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과 관련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졌다(Kelly, Whitley and Sipe, 2007). 손자녀 양육 상황에서 있어서도 자원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자원'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원과 경제상태다(Bowers and Myers, 1999). 본 연구 역시 이 두 가지 요인을 '자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원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는 것이며,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주, 2009). 사회적 지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데, 가족, 이웃, 친구 등 유의미한 타자들이 개인에게 지원하는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박경애, 2007; 송유미 · 이윤희 2009; Thoits, 1995), 자녀 및 이웃과의 접촉횟수, 사회 활동 등과 관련시키기도 한다(김미혜 · 이금용 · 정순돌, 2000; 오인근 · 오영삼 · 김명일, 2009). 이 연구들은 자녀, 친구, 이웃과의 접촉빈도가 적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고,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한바 있다(김영주, 2009; 박경애, 2007).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으로서 자녀접촉과 이웃 · 친구로부터의 도움을 설정하여 이들 지원이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자원'으로서 노인의 경제상태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김혜선, 2005; 배진희, 2007; 이정화 · 한경혜, 2008; 배나래 · 박충선, 2009)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를 감안하면, 조부모의 경제형편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경제형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자원'과 손자녀 양육 상황의 관련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 즉, '자원'은 손자녀 양육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선행연구(Sands and Goldberg-Glen, 2000; Bunch, Eastman and Griffin, 2007)들은 자녀세대의

가출,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손자녀 양육을 떠안고 아동의 주 양육자로서 부모대신 손자녀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이 다른 조부모들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더욱 열악하고 가족 및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일관적으로 보고하였다.

넷째, '자원'과 양육지각과의 상호관련성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관련된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들(권인수, 2000; 박경애, 2007)은 사회적 지원이 조부모가 지각하는 양육보상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감이 낮아지고, 양육 보상감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경제적 형편 역시 사회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순미 외, 2008; 한경혜 외, 200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원은 직접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부적응수준과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손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조부모의 가용한 자원이 차이가 날 것이며, 이로 인해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 역시 상이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자원'은 손자녀 돌봄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경험에 작용하는 중요한 네 가지 차원인 '스트레스원', '결과', '양육지각', '자원과 대처'를 각각 '양육 상황', '심리적 복지감', '양육지각', '사회적 지원', '경제상태'로 설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성을 맺으며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작용하는지를 매개모형을 토대로 탐색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손자녀 양육 상황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손자녀를 전담양육 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2. 손자녀 양육 상황은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손자녀를 전담양육 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조부모는 양육을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다.

가설 3. 양육지각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질 것이다.

가설 4. 양육지각은 손자녀 양육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즉, 손자녀 양육 상황이 다르면 양육부담 역시 상이하게 지각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다.

가설 5. 자원이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손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조부모의 자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자원은 손자녀 양육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즉, 손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자원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며, 이것은 다시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다.

가설 8. 자원은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자원이 많을수록 양육을 덜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경제상황, 보건 및 복지서비스실태, 사회참여, 노후생활인식, 삶의 질 등 포괄적 측면에서 삶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 조사시점에서 1년 전까지 9세 이하의 손자녀 양육을 담당할 경험에 있는 노인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893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조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67.2%, 남성이 32.8%로 대다수가 여성노인 응답자였다. 노인의 연령은 60대가 7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70대는 24.4%, 80대 이상은 1.9%로 나타났다. 노인의 교육수준은 대다수인 61.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20%가 중학교 졸업수준을 보였다. 조사대상 노인의 결혼상태를 보면, 67.2%에 해당하는 노인이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32.8%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였다. 가구형태는 조사대상자의 48.7%가 자녀와 동거하는 자녀동거노인가구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29.9%를 차지한 노인부부가구형태였다. 조사대상 노인이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돌봄만 9세 이하 손자녀수의 평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심리적 복지감이다. 심리적 복지감은 각각 우울과 생활만족도를 측정변수로 잠재요인화 하였다. 먼저 우울의 측정은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질문지에서 사용된 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한국판 측정형(SGDS)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우울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간단히 대답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응답의 측정은 '예'는 1점을, '아니오'에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5문항의 총합을 우울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선행연구(박미진, 2010)를 토대로,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질문지 문항 중 관련된 네 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연배가 비슷한 다른 사람에 비해 행복한 편이다', '나는 지금까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지금 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이다', '나의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등 네 문항이며,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생활만족도 문항들을 다시 역코딩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0.834이다. 정리하면, 우울과 생활만족도로 잠재요인화 된 심리적 복지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손자녀 양육 상황은 다시 손자녀 양육동기와 양육대가를 받는지 여부 등 두 가지 측정변수로서 잠재요인화 하였다. 손자녀 양육동기는 '2008년 노인생활실태조사'의 '현재부터 1년전까지 만 9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이 응답형태를 부모세대의 이혼, 가출로 인하여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담당한 경우(조손가족)를 1점, 그 외의 자녀세대의 맞벌이로 인하여 손자녀 양육을 담당한 경우를 0점을 부여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양육대가를 받는지 여부는 질문지 문항 중, '어르신께서 손자녀를 돌보는 대가를 받으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대가를 받았다는 응답은 0점,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점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결국, 손자녀 돌봄 상황 요인은 '조손가족여부'와 '양육대가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의 측정변

수들에 의해 노인이 '전담양육 상황'인지, 혹은 '공동양육 상황'인지를 구분한다.

양육지각은 질문지 중 '손자녀 양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은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것에 대해 손자녀 양육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에 1점, 대체로 즐겁고 보람이 있는 일이면 2점, 매우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면 3점을 부여하여 이것의 응답점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즉, 양육지각 점수가 높을수록 조부모가 양육을 덜 부담스럽게 지각하는 것이다.

경제 상태는 질문지 중 주관적 가구 경제형편 인식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것은 '어려운 편이다'를 1점, '어렵지도 넉넉하지도 않다'를 2점, '넉넉한 편이다'를 3점으로 서열변수화 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형편을 좋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은 크게 자녀지지와 이웃지지로 구분하였다. 자녀지지는 자녀접촉을 말하며, 이것은 전체 비동거자녀와 연락 및 왕래 정도를 '왕래를 거의 하지 않거나 일 년에 한두 번' 1점에서 '거의 매일' 6점에 이르는 응답범위를 총합한 것이다. 이웃지지는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지지를 합산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이것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리하면, 자녀지지와 이웃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지원은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AMOS 9.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전반적 양육 상황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대상자들의 전반적 양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변수들의 빈도 및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돌봄형태	맞벌이 동거	551	61.7		
	맞벌이 비동거	229	25.6		
	조손	113	12.7		
양육대가	대가 있음	231	25.9		
	대가 없음	662	74.1		
양육지각	매우 힘들고 부담	49	5.5		
	힘들고 부담	235	26.3		
	대체로 즐겁고 보람	465	52.1		
	매우 즐겁고 보람	144	16.1		
잠재변수	측정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돌봄 상황	조손여부	0.127	0.333	2.250	3.071
	양육대가	0.740	0.438	-1.104	-0.783
경제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1.623	0.601	0.328	-0.621
자녀지지	자녀접촉	4.501	1.244	-0.594	-0.147
이웃지지	이웃도움	1.580	1.010	-0.446	-0.834
양육지각	양육보람	1.843	0.674	0.199	-0.822
심리적 복지감	우울	3.950	3.999	0.955	-0.062
	생활만족	2.769	0.730	0.055	0.408

주: 1) 조손여부는 자녀맞벌이로 인한 손자녀 양육=0, 자녀기출, 이혼 등으로 인한 손자녀 양육=1

2) 양육대가는 양육대가 있음=0, 양육대가 없음=1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 양육 상황은 다음과 같다. 손자녀 돌봄 형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87.3%가 자녀세대의 맞벌이로 인해 손자녀 양육을 돕는 조부모들이었고, 12.7%는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이었다. 맞벌이자녀세대를 돕는 조부모들 중, 손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전체의 61.7%에 해당하였으며, 손자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25.6%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조손가족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맞벌이 자녀세대를 돕기 위해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로부터 손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74.1%가 양육대가 없이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과의 연락 및 왕래를 총합한 접촉정도를 살펴보면, 평균이 4.501이었다. 자녀접촉의 측정범위가 1에서 6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대상자들은 비교적 일정하게 자녀들과 접촉을 유지하였다.

조부모들이 지각하는 가구의 주관적 경제형편의 점수는 평균 1.623이었는데, 1점에서 3점 사이의 측정범위를 고려할 때 이것은 보통정도로 경제형편을 지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웃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를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신체적 지지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는데 응답자들의 평균은 1.580으로 나타났다.

1점에서 4점까지의 측정범위를 고려한다면, 응답자들이 평소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70%정도가 손자녀 양육을 대체로 보람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부모들의 심리적 복지감의 경우, 우울은 평균이 3.950이었으며, 생활만족의 평균은 2.760이었다. 우울의 응답범위가 0에서 15점 사이이며, 이 척도의 우울증 판단기준이 8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보건복지가족부, 2008), 응답자들의 우울수준이 그리 심각한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역코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1에서 5점의 범위 안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자들은 보통수준의 삶의 만족수준을 보였다. 한편 왜도와 첨도로써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들(권현수, 2009; 박미진, 2010)이 제안한 왜도 절대값 3미만, 첨도 절대값 10미만의 정규분포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표 1>에서처럼 각 변수들의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2>과 같다. 분석 결과,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다중공선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심리적 복지감을 구성하는 두 측정변수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 두 요인이 동일한 잠재개념인 심리적 복지감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000							
(2)	0.117***	1.000						
(3)	-0.215***	-0.031	1.000					
(4)	-0.225***	-0.174***	0.114***	1.000				
(5)	-0.026	-0.024	0.110***	0.088***	1.000			
(6)	-0.296***	-0.005	0.258***	-0.151***	0.135***	1.000		
(7)	0.209***	0.012	-0.373***	-0.215***	-0.139***	-0.259***	1.000	
(8)	0.117***	-0.007	-0.394***	-0.174***	-0.176***	-0.338***	0.615***	1.000

주: 1) (1)조손여부 (2)양육대가 (3)경제상태 (4)자녀접촉 (5)이웃도움 (6)양육지각 (7)우울 (8)생활만족
2) *** p<0.01

2. 구조모형분석

1) 모형의 평가

연구가설에 의해 설정된 연구모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²⁾. 본 연구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지수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RMSEA는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05에서 0.08사이면 적합한 적합도로 간주되며, TLI, CFI는 0.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표 3>에서 확인하다시피, 본 연구모형은 대체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2) 경로계수의 평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를 파악하여 본 연구 가설을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예상과 달리 손자녀 돌봄 상황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인 '손자녀 양육 상황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손자녀 양육 상황이 양육지각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손가족'과 '양육대가를 받지 않았음'으로써 측정된 '전담양육 상황'은 양육을 좀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전담양육 상황'은 아무래도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재정적 책임감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부모가 양육을 더욱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양육지각은 심리적 복지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선행연구(최해경, 2002; Sands and Goldberg-Glen, 2000; Mills, Gomez-Smith and DeLeon, 2005)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조부모가 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두 번째 가설과 세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2) 본 연구의 χ^2 값은 38.639($p < 0.001$)이며 자유도는 12이었다. 이 결과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며, 곧 모형의 부적합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χ^2 검증이 지나치게 영가설을 엄격하게 검증하여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한다는 점, 또한 표본크기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모형을 평가하는데 널리 쓰이지 않는다(홍세희, 2000).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χ^2 대신 적합도지수를 통해 모형을 평가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38.639***	12	0.972	0.915	0.050

잠재변수간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돌봄 상황 → 심리적 복지감	1.847 (0.131)	1.219	1.515
돌봄 상황 → 양육지각	-1.448 (-0.437)	0.431	-3.361***
양육지각 → 심리적 복지감	-0.873 (-0.204)	0.203	-4.307***
돌봄 상황 → 경제형편	-1.006 (-0.341)	0.223	-4.517***
경제형편 → 심리적 복지감	-1.662 (-0.346)	0.199	-8.352***
돌봄 상황 → 자녀지지	-2.383 (-0.390)	0.521	-4.577***
자녀지지 → 심리적 복지감	-0.290 (-0.122)	0.099	-2.942***
돌봄 상황 → 이웃지지	-0.592 (-0.120)	0.255	-2.326**
이웃지지 → 심리적 복지감	-0.313 (-0.110)	0.095	-3.274***
경제형편 → 양육지각	0.118 (-0.115)	0.053	-2.223**
자녀지지 → 양육지각	-0.022 (-0.040)	0.029	-0.750
이웃지지 → 양육지각	0.050 (0.075)	0.023	2.169**
돌봄 상황 → 조손가족	1.000 (0.613)		
돌봄 상황 → 양육대가	0.372 (0.173)	0.107	3.465***
심리적 복지 → 우울	1.000 (0.718)		
심리적 복지 → 생활만족	0.217 (0.860)	0.015	14.919***

주: 1) 경로계수의 ()는 표준화계수.
 2) * p<0.10, ** p<0.05, *** p<0.01

두 번째 가설과 세 번째 가설을 토대로 네 번째 가설인 양육지각이 과연 손자녀 양육 상황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우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a)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하고, 동시에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b)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두 경로의 결합(a×b)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권현수, 2009; Mackinnon, Warsi and Dwyer, 1995).

<표 4>에서 보듯이, Sobel 검증 결과 양육지각은 손자녀 돌봄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담양육 상황 즉, 자녀세대 가출로 인한 손자녀 양육동기와 양육대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손자녀 양육의 부담을 더 느끼며, 이것은 다시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조부모가 '전담양육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전담양육 상황'에 처한 조부모가 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양육지각은 손자녀 돌봄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가설인 자원이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자원 즉, 경제형편, 자녀지지, 이웃지지 등이 심리적 복지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형편과 자녀지지, 이웃지지 모두 심리적 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선행연구(김영주, 2009; 박경애, 2007; 양소정 외, 2008)에서처럼 조부모의 물질적 자원과 자녀 및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섯 번째 가설인 손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자원이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돌봄 상황이 각 자원에 이르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돌봄 상황이 경제형편, 자녀지지, 이웃지지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선행연구들(배진희, 2007; 송유미·이윤형, 2009; Jendrek, 1993)은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이웃 및 친구와의 교류의 감소 등 매우 결핍된 환경에 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양육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세대의 가출로 인한 조손가족상황에 놓인 조부모들은 경제형편을 더욱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자녀와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수준 역시 더욱 낮은 등, 자원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가설에서처럼 과연 자원은 손자녀 양육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앞에서와 같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요인은 경제형편과 자녀지지였으며, 이웃지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것은 손자녀 양육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직접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담양육 상황'으로 인한 열악한 경제형편과 자녀접촉의 감소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추는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결국,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낮추는데 '전담양육 상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과 자녀접촉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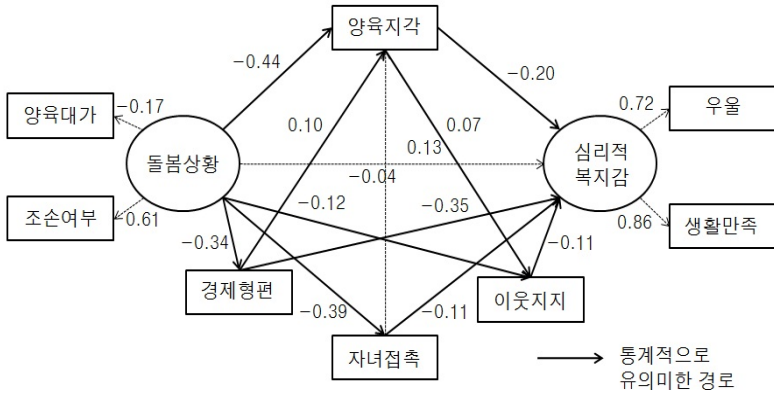
<표 4> 양육지각과 자원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경로	Z
돌봄 상황 → 양육부담 → 심리적복지	2.650**	돌봄 상황 → 자녀지지 → 심리적복지	2.230*
돌봄 상황 → 경제형편 → 심리적복지	3.973***	돌봄 상황 → 이웃지지 → 심리적복지	1.896

주: 1) * p<0.10, ** p<0.05, *** p<0.01

$$2) Z = a \times b / \sqrt{(b^2 \times SE_a^2 + a^2 \times SE_b^2)}$$

<그림 2> 최종경로모형(표준화계수)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가설인 ‘자원은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형편, 자녀지지, 이웃지지가 양육지각에 이르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미약하지만 경제형편과 이웃지지요인이 양육지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고, 자녀지지는 양육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손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조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제약은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양육부담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이웃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도움은 생활에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면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노인의 부담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양육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조부모의 양육지각에 이웃의 관심과 경제적 원조, 즉 가족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자녀 양육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양육지각에 관련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그림 2>에서 보듯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손자녀 양육 경험과 관련된 중요한 네 가지 차원, 즉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 심리적 복지감은 상호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을 구성하였다. 특히 돌봄 상황이 직접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양육지각과 경제형편, 자녀접촉요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V. 맺는 말

본 연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부모들이 처한 손자녀 양육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주목하고, 동시에 양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상호 어떠한ダイナ믹을 형성하면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되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이 때 손자녀 양육 상황, 양육에 대한 지각, 자원, 심리적 복지감 등 네 가지 요인을 손자녀 양육경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손자녀 양육동기의 대부분이 맞벌이 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양육대가를 받지 않고 손자녀 돌봄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손자녀 양육을 도와줌으로써 성인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유용한 사회적 자원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모형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손자녀 돌봄 상황의 차이가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지각과 자원을 매개로 한다면 손자녀 돌봄 상황은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 특히 조손가족이고 양육대가를 받지 않는 '전담양육 상황'의 조부모는 부정적 양육지각, 열악한 경제형편, 자녀접촉의 감소와 연결됨으로써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결과는 '전담양육 상황'에 놓인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경제적 상황,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됨을 시사한다.

셋째,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부모가 양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의 여부는 심리적 복지감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이러한 양육지각에 대해 경제형편과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이 또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녀접촉이 양육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녀접촉이 조부모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뿐 아니라, 손자녀 돌봄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육지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노인의 입장에서 자녀접촉의 의미를 손자녀 양육행동에 국한시켜 다시 생각해보았다.

경제적 자원과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이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원이 손자녀 양육행동에 직접적 도움이 되기 때문일 수 있

다. 반면, 자녀접촉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양육행동에 있어서 그 자체가 반드시 손자녀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직접적 도움이 아닐 수 있다. 즉, 자녀의 왕래가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자원임은 분명하지만 손자녀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녀와의 접촉만으로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가 소비되는 손자녀 양육부담을 덜 수 없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이것은 노인의 삶의 만족감의 일차적 원천으로서 자녀가 과연 어떤 도움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지, 자녀의 입장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 내용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국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양육지각’의 역할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손자녀 돌봄의 상황에 따라 조부모들이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무리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조부모가 항상 만족과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손자녀 양육이 생활에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가족의 변화,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조부모들은 다양한 손자녀 양육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의 양육 상황이 모든 조부모들에게 똑같이 인지되고 경험되지 않다는 점, 더욱이 손자녀 양육이 생활의 경제적,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세분화하여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원’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자원은 직접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돌봄 상황과 심리적 복지감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 자원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의 지원, 이웃·친구의 도움 등 가족 내외의 환경을 포괄하였다. 그러므로 손자녀 양육 노부모를 돕기 위한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매개환경으로서 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폭넓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 양육의 주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의 조부모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개요인으로서 자원의 역할은 ‘전담양육 상황’의 조부모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설명하는데 자원의 매개역할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전담양육 상황’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단지 조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전담양육 상황’에서 조부모의 심

리적 건강은 이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아동의 삶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개발은 가족 내 아동 등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가족 내외의 환경을 아우르는 범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으며, 이것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다(Kelly, Whitley and Sipe, 2007).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내 가족임과 워먼트 프로그램, 손자녀 학교체계 등 조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지원체계들과 결합하여 조부모들의 역량과 책임감 뿐 아니라 조부모가 속한 가족까지 강화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왔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손자녀 양육 조부모 연구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치중이 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의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손자녀 돌봄 조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가지고 직접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는 성인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손자녀세대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족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서 그 의미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단지 가족 내 대리적, 보조적 양육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적 역할수행자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보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나, 그 손자녀 돌봄과 관련한 내용이 양육실행년수 등 손자녀 양육경험에 작용하는 그 외의 중요한 요인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양한 양육경험을 반영하도록 손자녀 양육 상황을 세분화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손자녀 양육 상황에 놓인 조부모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결과 해석과 정책제안 시 구체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조부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손자녀 양육노인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내부집단 별 특성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손자녀 양육경험을 형성하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995-1008.
- 김동배·박은영·김세진 (2010) “손자녀 주양육자 및 공동양육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183-209.
- 김영주 (2009) “농촌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6: 77-104.
- 김오남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연구》 16: 59-84.
- 김미혜·이금용·정순돌 (2000)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20(3): 211-226.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8: 85-117.
- 박경애 (2007)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박미진 (2010)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0(3): 895-910.
- 박충선 (2010) “조손가정의 형성원인과 양육경험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105-125.
- 배나래·박충선 (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 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백경숙·김영란 (2006)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4): 109-128.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송유미·이윤형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간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3: 111-134.
- 신창환 (2010) “삶의 특성이 노인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2): 453-469.
- 양소정·정경미·김원경 (2008) “공동양육 조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3(4): 415-432.

- 양순미·임춘식·오윤자 (2008) “농촌 조손가족 조부모들이 손자녀에 대한 비용: 보상적 가치관이 손자녀 양육 이후의 생활만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농촌 사회》 18(2): 145-178.
- 오인근·오영삼·김명일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이선형·이경림·임춘희 (2009)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4): 57-77.
- 이상균 (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 121-151.
- 이정화·한경혜 (2008) “농촌 조손가족의 세대관계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8(1): 177-196.
- 이지연·정경미·김원경 (2008) “중산층 양육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3(3):325-341.
- 최혜경 (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최혜지 (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31-4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owers, B. F. and B. J. Myers (1999) “Grandmothers Providing Care for Grandchildren: Consequences of Various Levels of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8(3): 303-311.
- Brown, D. R. and A. Boyce-Mathis (2000) “Surrogate Parenting Across Generations: African American Women Caring for a Child with Special Needs”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6(4): 339-351.
- Bunch, S. G., Eastman, B. J., and L. W. Griffin (2007) “Examining the Perception of Grandparents Who Parent in Formal and Informal Kinship Car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5(4): 93-105.
- Daly, S. S. and D. S. Glenwick (2000) “Personal Adjustment of Grandchild Behavior in Custodial Grandmoth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1): 108-118.
- Dolbin-MacNab, M. L. (2006) “Just Like Raising Your Own? Grandmothers Perceptions of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Family Relations* 55(5): 564-575.

- Emick, M. and B. Hayslip (1999) "Custodial Grandparenting: Stresses, Coping Skill, and Relationships with Grand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8: 35-61
- Fuller-Thompson, E., Minkler, M. and D. Driver (1997) "A Profile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Gerontologist* 27: 406-411.
- Gatz, M., Bengston, V. L. and M. J. Blume (1990) "Caregiving Families" I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edited by J. E. Birren and K. W. Schaie, CA: Academic Press.
- Goodman, C. and M. Silverstein (2002)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Family Structure and Well-Being in Culturally Diverse Families" *Gerontologist* 42(5): 676-689.
- Haglund, K. (2000) "Parenting a Second Time Around: an Ethnography of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due to Parental Cocaine Abuse" *Journal of Family Nursing* 6(2): 120-135.
- Jendrek, M. P. (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09-621.
- Kelly, S. J., Whitley, D. and T. A. Sipe (2007) "Results of an Interdisciplinary Intervention to Improve the Psychosocial Well-Being and Physical Functioning of African American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5(3): 45-64.
- Kelly, S. J., Whitley, D., Sipe, T. A. and B. C. Yorker (2000) "Psychosocial Distress in 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the Role of Resources,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24: 311-321.
- MacKinnon, D.P., Warsh, G. and J. H. Dwyer (1995) "A S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 41-62.
- Mills, T. L., Gomez-Smith, Z. and J. M. DeLeon (2005) "Skipped Generation Families: Sourc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Grandmothers of Grandchildren Who Live in Homes Where neither Parent is Present" *Marriage and Family Review* 37: 191-212.
- Musil, C.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5): 441-456.
- Sands, R. G. and R. S. Goldberg-Glen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2011. 2. 27 접수 | 2011. 3. 25 심사(수정) | 2011. 4. 19 채택]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The Role of Resources, Type of Care and Perception of Caregiving

Yoojean Kang

This study examined what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providing daily care to their grandchildren. More focus on the role of various mediators such as caregiving perception and resources were given to investigate the complicated relationships between providing care and psychological function. I used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2008 Korean National Survey of Welfare Need in the Elderly'.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diverse circumstances of caregiving. Grandparents who cared their grandchildren on behalf of dual career parents emerged predominantly from them. Findings also suggested that type of caregiving was related to external factors. Grandparents shouldering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ir grandchildren showed lower levels of resources such as financial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and more negative perception of caregiving, which in turn was associated with lower psychological well-being. Finally, more financial resource and neighborhood support directly influenced more positive perception of caregiving. To enhance resources and empower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community-based intervening mechanism incorporating various environments and effective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grandparents should be discussed in future studies.

Key Word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Psychosocial well-being, Perception of caregiving, Resources, Mediating effects